

7월 28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7월 28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美 증시 `막판 뒤집기`..다우 0.17%↑</p>	<p>뉴욕증시가 27일(현지시간) 장막판 뒷심을 발휘하며 극적인 상승세로 마감했음. 6월 신규주택판매가 큰 폭으로 개선된데 힘입어 은행주와 주택건설주가 으뜸세를 보이며 시장 반등을 이끌었음.</p> <p>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15.27포인트(0.17%) 상승한 9,108.51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93포인트(0.1%) 오른 1,967.89를,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2.92포인트(0.3%) 상승한 982.18을 각각 기록했음.</p> <p>주식시장은 마감 직전까지만 해도 약세를 나타냈고 애트나와 하니웰, 버라이즌 등의 일부 기업들의 실적관련 악재와 이번주 사상 최대 국제발행을 둘러싼 우려감이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6월 신규주택판매가 큰 폭의 개선된데 힘입어 은행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뉴욕증시는 장막판 마감과 거의 동시에 플러스권으로 돌아섰음. 주택지표 호재에 힘입어 국제유가는 반등세를 이어가며 배럴당 68달러 선에서 마감했음. 반면, 지표 개선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약화로 미국 국채와 미국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냈음.</p>
<p>주택지표 개선에 은행·주택건설주 동반 강세</p>	<p>6월 신규주택판매가 전월비 큰 폭으로 증가한데 힘입어 은행주와 주택건설주가 동반 강세를 나타냈음. 주택시장 침체가 최악에서 벗어났다는 기대감이 작용했음. 우선 다우 종목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4% 오른 가운데 리전스 파이낸셜과 자이언스 뱅코프가 각각 8%와 12%씩 급등했음. 주택판매 지표 개선으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부실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했음. BoA의 경우에는 모간스탠리가 개선된 자본금 수준과 싼 밸류에이션을 감안해 은행업종 최선호주(Top Pick)로 추천한 점도 호재로 작용했음.</p>
<p>美 6월 신규주택 11%↑..8년래 최대 상승폭</p>	<p>미 상무부가 발표한 6월 신규주택판매가 전년비 21% 급감했지만 전월에 비해서는 11% 급증한 연율 38만 4,000채를 기록했음. 이는 미국의 주택시장이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악의 상황만큼은 벗어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특히 6월 신규주택판매는 작년 11월 이후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월간 상승폭으로는 8년만에 최고치 수준임. 블룸버그통신이 조사한 시장의 컨센서스인 연율 35만 2,000채도 크게 웃돌았음. 실업률 상승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낮아진 집값과 사상 최저치 수준인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주택 구입자들을 끌어들이었음.</p>

제목	주요 내용
국제유가 소폭 반등..배럴당 68달러	국제유가가 주택지표 개선에 따른 원유수요 회복 기대감으로 올랐음. 상승폭은 크지 않아 유가는 배럴당 68달러선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음. 27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9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33센트(0.48%) 오른 68.38달러로 마감했고 국제유가는 미국의 6월 신규주택판매가 전월비 11% 급증했다는 소식으로 오전중 68.99달러까지 상승한 후 오름폭을 조금 줄인채 거래를 마쳤음.
또 중국에 고배..加 철광석광산 인수 무산	28일 지식경제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캐나다 블룸레이크(Bloom Lake) 철광의 지분 인수를 위해 최근까지 마지막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지분은 지난 20일 중국으로 넘어갔음. 당초 광물자원공사는 SK네트웍스, 현대하이스코와 함께 블룸레이크 철광의 지분 25%와 생산물량 연간 500만톤 확보를 타진해왔음. 하지만 중국 우한강철이 가세하면서 딜이 흔들렸음. 우한강철은 지난달 블룸레이크 철광 지분의 25%를 보유하고 있는 컨솔리데이티드톰슨 지분 20%를 2억4000만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음.
제조업 BSI, 5개월 연속 상승세..車 `견인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제조업 BSI는 81로 지난 6월의 77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망치였던 78보다도 높은 수치. 이는 5개월 연속 오른 것이며 지난해 6월 85를 기록한 이후 가장 양호한 수준이다. 다만 8월 전망치는 80으로 1포인트 가량 내려갈 것으로 집계. 매출BSI는 85로 전월과 동일했지만 채산성은 83에서 87로 4포인트 높아졌고, 자금사정도 85에서 90으로 월등히 나아졌음. 조선(-9p)과 영상음향(-5p) 등의 업종은 하락했지만 자동차(+21p), 기계장비(+14p) 등의 업종이 큰 폭으로 올라 사실상 경기회복의 주역으로 꼽혔음.
韓 GDP성장률 예상치 -1%대로 속속 집결중	주요 기관들이 전망하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1%대로 올라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2.4%에서 -1.6%로 올려잡은 데 이어 27일 금융연구원도 -2.8%에서 -1.8%로 1%포인트 상향조정. 지난 3월까지만해도 평균적으로 -4.3%를 부르던 외국계 투자은행들도 최근 -1%대 후반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올려잡고 있음.
제약협회 "미리준 리베이트도 약가인하 대상	제약협회는 27일 "일부 제약사들이 병의원을 상대로 최대 1년치의 리베이트를 선(先)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약가인하처벌을 피하기 위해 8월 이전에 리베이트를 선 지급하는 불공정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 제약협회는 복지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리베이트 제공이 8월 이전에 이루어졌다 해도 8월 선지급분부터 약가인하 처벌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전해 들었으며 이 같이 강조. 협회는 또 "8월 이전에 이루어진 선 지급 이외의 불공정거래행위도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덧붙였다.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